

2007년 영적 대각성 100주년 기념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제1회 순교자기념주일 예배 자료집

2007. 6. 24



차례

표지 사진 설명

아펜젤러 목사 · 신석구 목사 · 서기훈 목사 · 구영언 전도사
유관순 열사 · 최인규 권사 · 김영학 목사 · 권원호 전도사

순교자기념주일 목회서신 - 신경하 감독회장 · 4

순교자 기념주일 설교문

- 1) 순교자의 영성으로 - 이선균 목사(아현중앙교회) · 6
- 2) 순교자의 뒤를 따르자 - 박윤억 목사(매봉교회) · 12

순교자에 대한 특강자료

아름다운 한국 감리교회 순교 전통 - 이덕주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 18

순교자기념주일 행사자료

- 1) 감리교회 순교지 및 순교자 유적지 방문하기 · 27
- 2) 감리교회 순교, 수난, 역사자료 프로그램 · 34
- 3) 감리교회 수난자 및 위인전 읽기 · 36

감리교회 주요 순교자 · 순직자 및 위인 · 37

강종근 목사 · 신석구 목사 · 서기훈 목사 · 이용도 목사 · 전덕기 목사

구연영 전도사 · 남궁억 장로 · 최인규 권사 · 유관순 열사 · 이 준 열사 · 최용신 선생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킵시다.



신경하 감동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는 6월 24일 주일은 제1회 순교자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제26회 총회 6차 실행부위원회는 해마다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제정하여, 순교자의 희생정신과 영성을 우리 안에서 계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순교하신 선배 신앙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뜻을 따름으로써 소중한 신앙유산을 빛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순교자기념주일을 맞아 감리교회의 자랑스런 신앙유산을 되새기고, 그 전통과 역사를 이루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로 고통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며, 참된 순교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의 거룩한 아픔 안에 존재해 왔음을 교회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교의 정신과 희생을 기념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하

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민족과 역사의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10)는 먼저 가신 순교자의 영성이요, 부활의 영성임을 믿습니다.

순교자기념주일을 통해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순교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손해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 합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자처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걷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 감리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본받아 교회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벧전 5:8-9).



순교자의 영성으로(출19:1-6, 벧전4:12-9)

이선균 목사 ' 아현중앙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20세기 초까지 사회의 버팀목이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존경 받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교회의 성장은 정체상태가 되고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사회정서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인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 한국 교회가 가졌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은 점차 위축되었으며,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픔과 수치를 드러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사회의 유일한 소망의 터전임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에 흐르는 '순교자의 영성' 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제의 잔혹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6.25와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년 넘게 이어진 민족 종교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순교자의 영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2007년부터 6월 넷째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며 결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순교적인 영성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버리고 세속의 관료주의가 교회의 뿌리까지 스며들어 화석화된 데 있습니다. 철야 기도 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의에만 들어가면 정치꾼으로 바뀌는 것이라든지,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사회에서는 사기꾼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모두 신앙의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삶의 이중성 때문이고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을

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래적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혈맥 속에 흐르는 '순교자의 영성' 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가고 지켜내야 합니다.

김유순 감독님, 조상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적 영성을 지키기 위해 시대의 쇠뿔을 밟고 지나가는 용기를 회복할 때 입니다. 20세기 초 한국교회가 가졌던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은, 신앙과 삶의 이중성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의 쇠뿔 즉 순교자의 영성으로 다시 뚫기를 하며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출애굽의 첫 목적지이자 결정적인 목적지이며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체결의 장소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근거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장점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본문은 박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주후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소아시아에 전개된 최초의 광범위한 그리스도인 박해를 눈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적 영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순교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복종하는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 같은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붙들려 언약을 지키는 것이 순교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지난해, 순교자 개념정리를 위한 세미나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말투스 순교자'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스테반은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자들은 양심과 하나님께 거짓 되느니 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집과 재산과 자녀와 친척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곧 순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던 곳은 투기장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곳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순교적 영성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날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각자의 항아리에 저 궁궐 뜰에 있는 연못물을 길어다 채우라.” 신하들은 명령대로 항아리에 연못물을 길어 열심히 채웠으나 항아리에는 물이 고이지를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밑 빠진 항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물 걷기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충성스런 신하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계속 항아리에 물이 고이지 않아도 열심히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계속 물을 길다 보니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연못물이 마르자 연못 바닥에 번쩍거리는 금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신하는 금덩어리를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네 것일세. 누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시험을 통과한 자네에게 상으로 금덩어리를 주겠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처럼 압담할 때가 있으나 그것이 순교자의 길이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금덩어리’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둘째로 순교자의 영성을 지켜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말하기 시작하며 그가 이제까지 겪은 고난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불 시험, 즉 불길 같은 시련과 적대 행위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혹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믿

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이름을 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면, 그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영성은 내려서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 가시밭 길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었드릴 때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열 두 제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매는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맛디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 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 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맡아 시무하셨던 조셉 톤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루마니아의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차마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고 추방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신학생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분은 위대한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조셉 톤 목사님은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훗날, 공산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었던 시기에 미국 복음주의 잡지사의 한 기자가 조셉 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그 분은 “저는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자가 의아한 얼굴로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고 당신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이 되어 나의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 까봐 두렵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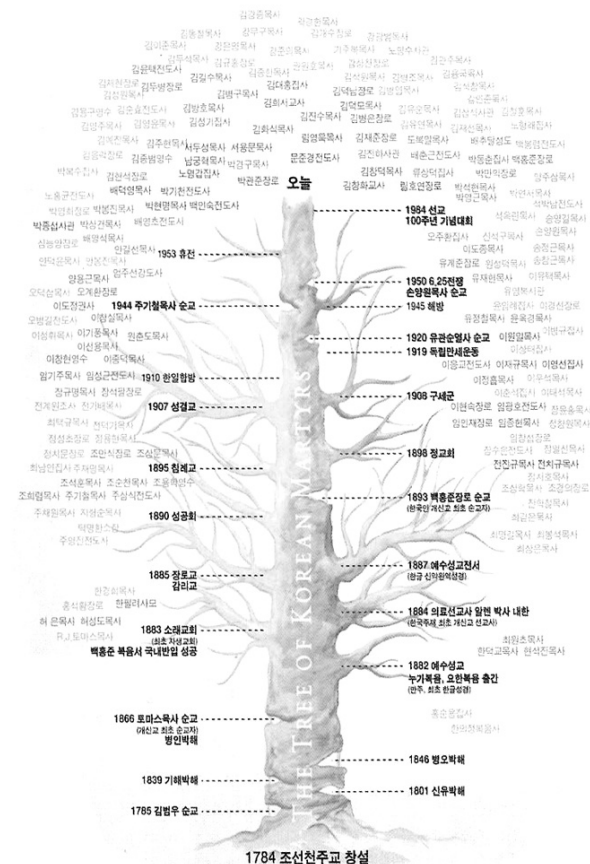
셋째로 순교자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 그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이다.’ 내 힘으로 순교자의 영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자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영이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목사님을 한번 시험 삼아 내보냈던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목사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던 교회로 갔습니다. 이미 일본 경찰대와 경찰대 소속의 고등계 형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다섯 가지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 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목사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감으로 돌아가 다시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고난은 내가 어찌다 견딜 수가 있으나,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십시오. 네 번째로, 의(義)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는 마지막 돌아 올 수 없는 그 길로 걸어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그 분은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주 목사님의 아드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순교자의 영성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 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의 첫 번째 순교자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할 순교자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간직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뒤를 따르자” (히브리서 11:32-40)

박윤익 목사 | 매봉교회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순교자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전교회적으로 이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념주일로 정하고 지키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평화롭게 사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버릴 수 없는 신앙의 몸부림 결과로 나타난 피로 다져진 땅이 이 땅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복음의 씨를 뿌려 이 땅이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고, 또한 땀을 흘리며 어디든지 갔던 그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땅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으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자들의 덕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말은 “모든 억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부인하기보다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생명 희생을 포함하는 종교적 증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 귀한 믿음의 정신을 다시 새기면서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준비하며 기도하여야 할 텐데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째, 남을 섬길 줄 알아야 순교자를 따를 수 있습니다.

1890년대에 이상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랑아범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머슴살이나 마부, 지게

꾼, 장돌뱅이 같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 먹는다’,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싫증 나면 자기 나라에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 행랑아범도 이 소문을 듣고 몹시 흥분하여 진상을 파악하고자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먹고, 팔아넘기는’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마침 사람을 구하는 올링거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리저리 살피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올링거는 이 행랑아범이 믿음직하여 ‘요리사’로 승격하여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더욱 예리한 눈으로 선교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까지 만나는 이 올링거는 하인에 불과한 행랑아범에게 사람대접을 해 주고 얼마나 따뜻하게 해 주는지 그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감동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개종하여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위장취업을 한지 2년만이었습니다. 그 후 홀(W. J. Hall) 선교사와 단짝이 되어 평양에서 선교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 기독교도 박해사건’을 맞아 기독교인 체포령이 내려 투옥이 되고, 배교를 강요당하며 못매를 맞는가하면 선교사에게 석방대가로 돈을 요구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배교를 거부하자 심한 매를 맞고 거의 시체가 되어 실려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은 피난가는 사람들의 짐을 맡아주고, 전염병이 돌 때에는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홀은 이때 병을 얻어 회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평양사람들은 감동하게 되어 훗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행랑아범은 계속 전도하다가 신학회에 들어가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고 1901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김창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퇴하기까지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어도 밑바닥 생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머슴이었다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의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았습니다.

홀 선교사는 남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남의 나라 천한 백성들을 섬기다가 순직하였습니다. 또한 천한 하인 출신이 백성을 섬기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최초의 목사가 하인 출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높은 위치를 좋아합니다. 아래 위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령자가 되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을 비굴하게 봅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누가 높겠습니까? 순교자는 남을 섬긴 결과입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려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 달라는 제자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시기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고 섬

기려는 준비는커녕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이야기하는 교회는 많이 모이지만 고난을 이야기 하는 교회는 외면당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터져나갈 것 같지만 책망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점차 줄어들고 목회자도 능력 없는 목회자로 치부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옮깁니다. 더 섬기기 위해, 더 봉사하고, 더 나누어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옮긴다면 천번 만번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사랑받기 위해, 더 높은 직분을 위해, 더 세상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를 옮긴다면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셨습니다. 처음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인정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으니 나도 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굶으셨으니 나도 굶고, 예수님도 거처가 없으셨으니 나도 들도 좋고, 산도 좋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모두가 형식이요,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순교자주일을 말하는 오늘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섬김의 삶을 죽음의 가로막아도 해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했습니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순교자의 뒤를 따라 최선을 다해 잘 섬깁시다. 섬기는 자만이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교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천안의 매봉교회는 유관순열사와 조병옥박사를 낳은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인물을 배출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는 그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전교인들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고, 불타는 교회를 지켜보며 더욱 순교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숯덩이가 된 타다 남은 잿덩이를 가슴에 안고는 옆드려 기도하며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활활 타오르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한일합방을 맞아 나라는 빼앗기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 진명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운동을 펼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에 보면 이들은 돌림자(字)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聖)자(字)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병옥박사의 아버지인 조인원은 조성택으로,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 유중무는 유성관으로, 불 탄 교회를 앞장 서 다시 세운 유빈기는 유성배로 이름을 바꾸고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마침내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3,000여명을 이끌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타다 남은 장작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열정도 사라져 버리고 그저 옛날이야기만 하다가 흠어지지 않는습니까? 그 당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가문에서 쫓겨날 일입니다. 집안이 망할 일입니다. 어디 감히 조상이 지어준 이름 석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하겠기에, 그래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겠기에, 쫓겨날 결심을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이 이름을 지키는 것 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뀐 이름을 기억하면서 순교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890년경에 스웨터 선교사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해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뜨거운 가슴을 안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과나리봇짐을 둘러메고 복음기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천 땅에 첫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이 지금의 천안 최초의 교회인 1901년에 세워진 매봉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단했으므로 이 민족을 위해 밀거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심합시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순교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말씀부터 순종하여 준비합시다. 적은 것부터 행하므로 큰 것까지 이룹시다. 그러면 주님께 갈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순교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우매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아부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신대에 나가기를 권장하며 학생들을 팔아먹는 선생이 있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알리는 종까지도 떼어 바치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따라가는 교인들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군사정권에 아부하며 그들의 머리위에 축복하며 그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인 양 유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과 이권에 모든 것을 팔아먹고 갈대와 같이 흐느적거리는 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편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승리했을 때 이들은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멋있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시대를 알고 시대를 바르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를 증언하다가 그 일로 인해 고난

과 죽임을 당하되 타협이나 배교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청주에 가면 3.1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분의 독립유공자의 동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한명의 동상의 목에 밧줄을 걸어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감리교회의 감독까지 지낸 모목사의 동상이었습니다. 후대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평가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모든 교회가 동참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교회에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 발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신석구목사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북한으로 끌려가서도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자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모 감독은 감리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천주교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지금까지 존경받고 그의 자료가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우리의 영원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목회자가 존경받고 교인들의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와 교회와 교인이 불신을 받고 오히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시대입니까? 이때에 누가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겠습니까?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 1909년 백만명 구령운동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대를 바로 알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 붙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죄악을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요청함으로 시대의 필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시다. 말로만 'Beyond 1907' 이 아니라 1907년의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시다. “바른 길에서 이탈된 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 사단의 양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편을 만듦으로써, 모든 지위와 혜택을 더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저울질 했습니다. 교회부흥과 영적성장보다는 세속에 더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만하여 교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고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성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든 악취를 풍기는 역할만 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인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대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순교의 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관순 열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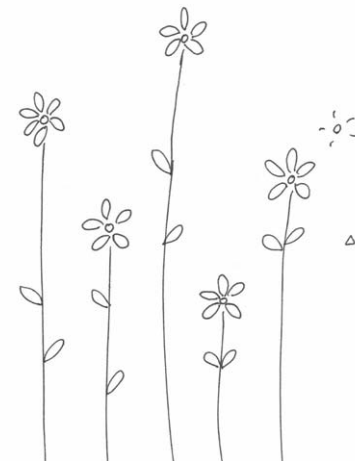
유관순은 순교자의 반열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일제에 대한 굵히지 않은 신앙정신과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목숨을 다할 때까지 기도하며 독립만세운동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진정한 순교·순국자입니다. 그가 이화학당에서 선교사와 목사에 배웠으며, 작은 아버지는 매봉교회 전도사였고, 그가 매봉산에서 기도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마침내 왜놈들의 고문에 의해 포악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대적인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했을 것입니다. 과연 유관순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녀의 신앙과 애국심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며 배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자는 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남을 섬기는데 앞서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행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인 사명도 피하지 말고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순교자들도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 살았으며, 누가 가족을 위해 살았으며, 누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았으며 그것 때문에 어떤 이는 죽임을 다하고 어떤 이는 토굴에 갇히고, 또 어떤 이는 톱에 켜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두 주님을 위해 살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오늘 순교자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순교자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순교하기를 기도합니다. 순교는 기독교인으로 최대의 행복이요, 최대의 보람과 영광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열심히 삽시다. 잘못된 삶은 청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 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한국 감리교회 순교 전통

이덕주(감신대 교수 · 한국교회사)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semen est sanguis christentum)

2세기 로마 박해시대를 살았던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은 형장에서 흘리는 순교자의 핏방울을 씨앗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순교의 피가 흘러진 곳에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피의 전통 위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생겨났다. 교회 역사에서 순교자의 역할과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for Christ)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by Christ) 죽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martyr)라 부른다.

누가 순교자인가?

그런데 기독교 역사 전통에서 ‘순교자’ 칭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그 죽음이 복음 증거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순교’로 번역되는 헬라어 ‘마르튀스’(martyrs)는 본래 ‘증언’, ‘증거’란 뜻을 담고 있었다. 초대교회 박해시절 복음 증거가 곧 죽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마르튀스’는 곧 순교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순교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그 때문에 죽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사는 순교가 아니다. 둘째, 그 죽음이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당하는’ 죽음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적대 세력에 미움과 박해를 받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순교가 아니다. 셋째, 그 죽음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배교하거나 타협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였다는 말이다. 동양에서 ‘순교’란 단어는 “따라서 죽을” 순(殉)자와 “가르칠” 교(敎)자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순(殉)자는 다시 ‘죽을’ 사(死)와 열(10) 순(旬)자를 합친 것으로 고대시대 왕이나 장군이 죽으면 그 신하나 노비를 열흘 안에 죽였던 순장(殉葬)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섬기던 주일을 따라서 죽는 것처럼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순교란 진리로 고백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증언하며 살다가 그로 인해 핍박을 당하던 중 (배교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기꺼이 진리를 따라 죽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어느 종교에서든 순교가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신앙 행위로 여겨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종교일수록 그 생명력이 길고 강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에 항상 순교자의 희생이 따랐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 특히 감리교회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 말 시작된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 역사는 민족 수난과 박해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였다. 그 수난과 박해는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였던 일제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기독교를 적대시하였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말과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직후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저항의식이 투철했던 많은 감리교인들이 일제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해방 전 감리교인의 순교 혹은 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07년 8월 의병진압을 빌미로 민족주의자들을 색출하던 일본군 수비대가 경기도 이천지방 목회자 구연영 과 구정서 부자(父子) 전도사를 살해하고, 강화읍교회 권사 김동수와 두 동생 김영구 · 김남수 3형제를 처형한 것을 필두로 1919년 삼일운동 때 수원지방 제암리교회 홍원식 · 안중후 권사와 안진순 속장 등 12명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희생되었고 일제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었던 교인 중에 강종근 목사와 권원호 전도사, 최인규 권사 등이 ‘옥중 순교’의 길을 갔다.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도 많이 나왔다. 일제시대 시베리아에서 목회하다가 공산주의 러시아 정부에 체포되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복역하다 1932년 희생된 김영학 목사가 그 효시이며 해방 직후에는 북한지역에 수립된 ‘반(反) 기독교’ 공산주의 정부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대거 나왔고 전쟁 중에는 남과 북에서 정확한 명단조차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전쟁 기간 중 희생된 감리교인 중에 그 행적이 뚜렷하게 확인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략 200명 수준이다). 전쟁 기간 중 남북 혹은 행방불명된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들 중 앞서 정리한 ‘순교자’ 자격을 골고루 갖춘 인물이 과연 얼마다 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요소가 있지만 120년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민족에 충성한 순교자들의 수난과 희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음과 그런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부흥과 성장이 가능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 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희생과 죽음으로 증언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반복, 재생활 필요가 있다. 순교를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주제로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교회가 덜 부패하고, 덜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감리교 120년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순교자 이야기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끝내 자신의 목숨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감리교 순교자들을 대표할 뿐이다.

감독을 부끄럽게 만든 서리 전도사 권원호

일제말기인 1940년 9월 19일, 지방회를 겸한 원산지방 교역자회가 고성읍교회에서 열렸다. 서울에



서 정춘수 감독에 내려왔고 이수만 감리사를 비롯하여 지방 교역자 30여 명이 모여 감독의 ‘훈시’ (?)를 들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무렵 정춘수 감독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신사참배와 국민정신 총동원연맹 결성 등 총독부의 종교정책에 감리교 교역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런 지방회가 끝난 이튿날 지방회 장소를 제공했던 고성읍교회 담임자 이진구 목사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신사참배를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진구 목사는 ‘불경죄’로 재판을 받고 대전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날 지방회에 참석하여 사진 찍은 교역자 중에 회양읍교회의 권원호(權元浩, 1904-1944) 전도사도 있었다. 평남 중화 출신으로 3·1운동 때 고향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 헌병대의 습격을 받은 후 오히려 민족의식이 강화되어 고향에서 농촌운동을 벌이다 1937년부터 통천 협곡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1939년 회양읍교회에서 파송된 ‘시골 교회’ 전도사였다.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서리 전도사’ 신분이었던 그는 감히 감독과 정회원 목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제일 뒷줄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는 “교단이나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감독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이진구 목사가 체포된 것이 오히려 그의 ‘저항’ 정신을 부추겼다. 이후 그의 설교는 ‘위협 수위’ (?)를 넘나들었다.

“지금은 말세다. 흉년, 악역, 전쟁 등이 그 증거다. 말세는 하루가 가깝게 절박해 온다. 말세가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세계 인류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일본 천황은 현재도 장래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금은 가을이다. 꽃 피고 새 우는 봄은 가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슬픈 계절이 되었다. 그러나 때와 계절은 도는 것이다. 가을이면 겨울을 맞고 다시 양춘이 되어 백화가 어지럽게 피는 시절이 온다. 무주공산(無主空山) 삼천리 강산도 가을에서 봄을 맞이하게 될 계절이 멀지 않다.”

“유대 국민은 애란[아일랜드]국에 점령당함으로 나라 없는 국민이 되어 비참한 지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선인도 일본에 병합되어 나라 없는 유대국과 같이 비참한 운명에 빠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만 있으면 복국(復國)은 반드시 된다.”

이 같은 그의 설교 내용은 회양읍 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속속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협곡교회에 있을 때 이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통천경찰서장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은 바 있던 ‘후테이 쉐진’ (不逞鮮人), 즉 ‘불량한 조선인’으로 ‘요시찰’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 설교가 그 이튿날로 고등계 형사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온한’ (?) 설교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 7월 10일(목요일), 그는 회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의 방에서 태극기가 나왔고 평소 쓰던 노트 6권이 압수되었는데 그 속엔 3·1운동 때 학생들이 시위하며 불렀던 ‘조선의 아들’이란 노래를 비롯하여 ‘인산곡가’ (因山曲歌), ‘애국가’, ‘조선청년가’ 등 불온가요(?)와 ‘내선일체’ (內鮮一體)를 내세운 일제의 통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국가흥망의 요소’란 설교 원고가 기록되어 있

었다. 그는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압수되면 불리할 것이 분명한 소지품과 기록들을 없애고 미리 신변을 정리하는 그런 ‘재주’도 없었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그러했기에 그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정에서 당당했다. 권원호 전도사는 1942년 1월 15일 경성지방법원 재판정에 섰다. 판사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일본 천황도 현재와 장래에 걸쳐 예수의 지배를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므로 지금도 천국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심은 물론, 일본 천황도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천조대신(天照大神)은 신이 아닌가?”

“천조대신은 일본국을 조성한 신이므로 여호와와 사자(使者), 즉 일본어로 ‘고츠카이’ (小使, 심부름꾼)로서 일본국 밖에서는 지배할 수 없는 신이다.”

“신사 참배를 하는가?”

“우상이므로 참배하지 않는다.”

결국 권원호 전도사는 1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일본 국체(國體)를 위협하게 했다는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 2년, 천황을 모독했다는 ‘불경죄’ 혐의로 1년, 모두 합쳐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고를 포기하였다. 일본인의 재판이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형기를 줄여 달라고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서 그의 투쟁은 계속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당한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옥중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4년 4월 13일, 서대문형무소 병감(病監)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떠난 것이다.

옥중에서도 신앙 양심을 외친 최인규 권사

고성읍교회 이진구 목사가 ‘불경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던 대전형무소는 일제말기 민족운동가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했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 ‘양심범’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들은 간헐적으로 계속 고문과 회유를 당했다.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사상 전향서>만 제출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혹한 악행이 가해졌다. 이진구 목사도 것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 받는 ‘양심범’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감옥 안에는 신사참배 거부자들보다 더 혹독한 악행을 당하는 죄수들이 있었다. 신사참배는 물론이고 황국국민서사(皇國國民誓詞)와 궁성요배(宮城遙拜, 혹은 東方遙拜)까지도 거부하는 죄수들이었다. 이들은 매일 아침 간수와 죄수들이 운동장에 모여 일장기(日章旗)에 경례하고,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신민서사를 낭송하고,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 도쿄를 향하여 절하는 궁성요배를 할 때마다 허리를 숙이지 않아 간수들에게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았다. 그 때 같은 신사참배 거부자라 할지라도 궁성요배를 하는 사람과 이마저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종교의식이었으나 국민서사나 궁성요배, 일장기 경례는 국가 의식이었다. 신사참배가 비신앙적(非信仰的)



최인규 권사 순교기념비

행위라면 궁성요배는 반민족적(反民族的) 행위였다.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자 중에 궁성요배는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정치적으로’ 궁성요배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에 신사참배는 물론 궁성요배까지 반대한 사람은 종교적인 저항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저항까지 한 셈이다. 이런 ‘종교·정치적’ 양심범은 ‘종교적’ 양심범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진구 목사가 간혀 있던 대전 형무소에 그런 ‘종교·정치적’ 양심범이 있었다. 동부연회 강릉지방 천곡교회 최인규(崔仁圭, 1881-1942) 권사였다. 그는

삼척읍(지금 동해시) 송정리 출신으로 나이 사십에 삼척읍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오십에 권사가 되었으며 1932년 권화선 권사와 함께 천곡교회를 개척,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목회자가 없는 그곳 교회에서 설교를 맡아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어려서 받은 서당 교육 외엔 정규 교육을 받은 바 없었지만 인격과 신앙에서 그는 교회 뿐 아니라 천곡 마을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었다. 성경 외엔 스승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우상 숭배’ 죄였다. 그래서 거부했고 교인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설교했다. 경찰이 그런 그를 가만 둘리 없었다.

정춘수 감독이 이끄는 ‘혁신교단’이 ‘국민정신 총동원 감리교연맹’을 결성하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한 1940년 5월, 그는 삼척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 때부터 십자가 고행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요지부동인 그를 굴복시킬 요량으로 그를 천곡 마을로 끌고 와서 ‘똥지게’를 지고 마을을 돌게 하였다. 봉건시대 징벌 중 하나였던 ‘조리돌림’을 하듯 경찰은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똥지게를 진 그에게 외치게 하였다.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요!”

최인규는 ‘십자가’를 지는 감격으로 그 일을 했다. 그 때문에 더욱 심한 고문을 당했다. 보다 못해 삼척읍교회 차국성 권사가 안면이 있는 일본인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최인규는 정신병 경력이 있었던 자인데 병이 도진 것 같으니 풀어 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일본인 경찰서장은 정색을 하면서 그를 훈계하였다.

“당신이 오히려 정신병자요. 당신도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결국 최인규 권사는 천황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불경죄’로 기소되어 1941년 11월 함흥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정치적 양심범들이 수용된 대전형무소로 옮겨졌다. 그곳에 가서도 그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전향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죄수들은 대부분 따라 하는 국민서사와 궁성요배, 일장기 경례까지도 거부하였다. 그 때문에 간수들에게

끌려 가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은 부지기수고 독방에 갇히기도 여러 번, 나중엔 ‘정신병자’로 몰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일로 최인규는 대전 형무소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런 최인규 권사를 이진구 목사가 형무소 안에서 만났다. 전에 이진구 목사가 강릉지방 사경회 강사로 왔던 적이 있었기에 최인규 권사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이진구 목사는 그러지 않아도 같은 감리교 출신의 최인규 권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던 중이었다. 고문과 악형으로 몸이 약해 질대로 약해진 최 권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최 권사님, 국민서사나 동방요배를 안하고 어찌 그렇게 매를 맞으셨소?”

그것이 “적당하게 시키는 대로 하고 매를 피하시오.”라는 말로 들렸는지 최인규 권사는 돌연, 이진구 목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일갈하였다.

“이 목사는 그것을 양심으로 기뻐서 하는 것이요? 난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니깐 거기 대하여는 다시 말을 마시오.”

‘육십 넘은’ 노인 권사의 훈계를 듣는 ‘마흔 살’ 목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훗날 이진구 목사는 회고록을 쓰면서, “그 순간 실로 얼굴이 화끈해 움을 느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거듭 표현하였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옥중 생활을 하고 있던 목사에게 노인 권사는 궁성요배까지 거부하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셋길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양심범’ 최인규 권사는 그렇게 ‘양심에 따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항의 삶을 살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전형무소 병감으로 옮겨진 후 사흘만인 1942년 12월 16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는 ‘만기 출옥’마저 거부하였다. 훼손과 비양심의 시대에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외로운 신앙인이 보여준 저항의 몸짓이었다.

‘선한 목자’의 본을 보인 김유순 감독과 조상문 목사

해방 후 1950년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은 주일이였다. 서울 교인들은 예배 중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의례적인 ‘정오 사이렌’으로 알고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난후 그 사이렌이 공산군의 남침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정부 당국이 방송을 통해 “공산군을 무찌르고 있다”고 하는 말만 믿고 오히려 ‘북진 통일’의 기회가 온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군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과 서울도 함락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난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을 사수할 것이냐?” 결정해야 할 순간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서울 사수’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교계 지도자들도 같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즉 서울의 마지막 날인 6월 27일 오후, 인사동 중앙교회에서 김유순 감독을 비롯하여 전도국 총무 박만춘 목사와 한영선, 박창현, 방훈, 김수철, 조상문, 엄재희 등이 모여 피난을 갈 것인가? 서울에 남을 것인가? 토론을 벌였다. 주로 월남한 목회자들은 “서울까지 공산군에게 내줄 수 없다.”며 서울 사수론을 폈고 남쪽에서 목회하던 이들은 “전쟁은 현실이다.”며 피난을 주장했다. 갑론을박 장시간 토론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김유순 감독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목자가 아닌가?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 양이 남아 있는 한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 한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행동(doing)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감독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존재(being)의 문제로 토론의 방향을 바꾸었고 거기서 답을 얻었다. 결국 감리교 목회자들은 김유순 감독이 제시한 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는 ‘목자 원리’에 근거하여 서울에 남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결론은 내렸지만 강제력이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피난 여부는 목회자 개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서울 사수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회자들은 이미 북에서 한번 맛을 본 공산치하였기에 공산군이 들어오기 직전 대부분 서울을 탈출했다. 또한 ‘선한목자론’에 입각하여 서울에 남기는 하였지만 ‘인공치하’ 3개월 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목회자들도 상당수였다. 그러나 ‘선한 목자론’을 제시했던 김유순 감독과 그를 따르는 감리교 목회자들은 서울에 남아 ‘인공치하’ 3개월의 수난과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였고 서울 수복 직전 공산군에 연행되어 돌아오지 못할 ‘북행 길’을 떠났다. 감리교 목회자로 서울에서만 20여 명이 납북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북송 도중에 희생되었다.

그런 식으로 서울에 남아 있다가 ‘납북’ 희생된 조상문 목사가 있다. 1949년 총회에서 감독이 된 김유순 목사 후임으로 아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는 감독의 ‘선한목자론’에 입각, 교회에 남아 은밀하게 새벽마다 기도회를 열어 열 명 남짓 피난가지 못한 노인 교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공산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한 8월에 접어들면서 서울에 남아 있던 우익 인사들에 대한 체포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교회 일을 돕고 있던 이군혁 권사가 찾아와 “아무래도 저들이 목사님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제가 살펴볼 터이니 목사님은 어서 피하세요.” 하며 강권적으로 등을 떠밀었다. 하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결국 조상문 목사는 피난길에 올랐다.

그 이튿날, 이군혁 권사는 목사 대신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려고 교회로 갔는데, 조상문 목사가 강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강 건너 계실 분이 왜 여기 계세요?”

“어제 권사님 말씀을 듣고 한강을 건너려고 아현동 고개 넘어 공덕동까지 갔는데, 남아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눈에 밝혀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왔어요.”

권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조상문 목사는 죽을 자리를 찾아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8월 23일 인민보위부에 연행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 잠깐 있다가 김유순 감독, 양주삼 감독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북행길에 올랐다. 휴전 직후 한 낮선 장교가 조상문 목사 유족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저도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조상문 목사님 일행과 함께 북으로 끌려갔는데 어디쯤에선가 목사님께서 저를 은밀히 부르시더니, ‘우리야 이미 살만큼 산 노인들이지만 자네는 아직 젊으니 탈출해서 새 길을 찾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 기회를 타서 도망치게.’ 하시고는 노인 목사님 몇 분이 호위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틈을 타 저는 탈출에 성공, 곧바로 군대에 들어가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유순 감독과 조상문 목사 등 많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위협이 탁치면 나 몰라라 도망치는 ‘샅군 목자’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선한 목자’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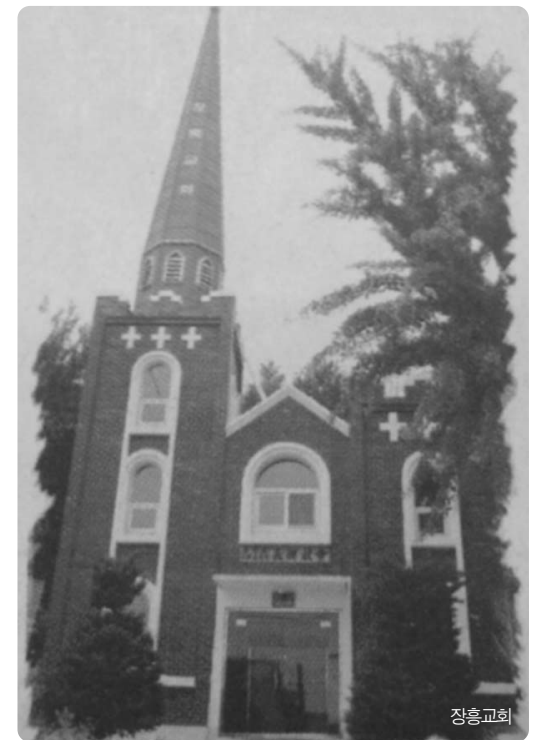
원수까지 사랑한 서기훈 목사

38선 이북에 있었기에 철원은 해방직후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여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철원제일교회 김윤옥 목사와 장흥교회 박성배 장로 및 박정배, 김정필, 정창화 등이 주도하여 ‘신한애국청년회’라는 반공 비밀결사를 조직, 활동하였다. 이들은 은밀하게 서울과 연락을 취하며 반공투쟁을 전개하다 조직이 탄로나 체포된 후 옥고를 치르다 전쟁 중 희생되었다. 전쟁이 터질 때 신한애국청년회 활동의 거점이었던 장흥교회를 서기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다. 그 때 그의 나이 육십오세로 은퇴를 앞둔 ‘노인 목사’였다. 전쟁이 터지자 주변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는 권유가 많았으나 “살 만큼 산 사람이 얼마를 더 살겠다고 피난을 가느냐. 그리고 여기 남은 교인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하며 철원에 남아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회를 거르지 않았다. 그의 품성과 인덕에 감동을 받은 지역 공산주의자들도 ‘인공치하’ 그의 목회를 눈감아 주었다.

그리고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히고 유엔군이 철원에 진입하면서 장흥리 상황이 역전되었다. 미처 마을을 탈출하지 못한 ‘바닥 빨갱이’ 몇 명이 교회 청년들에게 체포되었다. 우익 인사들은 인공치하 때 당한 분풀이라도 하듯 이들 공산주의자들을 공개 처형하려고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서기훈 목사는 아무 말 없이 사택으로 들어가 이사 짐을 쌓다. 놀란 교회 청년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서기훈 목사는 호통을 쳤다.

“나는 전도자로 여기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쳤지 원수 만들고 사람 죽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그러니 난 가야겠다.”

결국 청년들은 좌익 인사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3개월 후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한 번 역전되었다. 이번에는 교인들과 우익 진영 사람들이 숨어야 했다. 그 때도 서기훈 목사는 피난가지 않았다. 서기훈 목사 덕분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좌익들이었기에 서기훈 목사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서기훈 목사는 새벽마다 교회 종을 쳐서 토굴 속에 숨어 지내는 교인들에게 날이 밝았음을 알려주셨고 낮에는 방공호마다 찾아





인들이 교회 사택으로 와 보니 지팡이를 짚고 끌려 간 노인의 발자국만 흰 눈 위에 뚜렷하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지금 장흥교회 마당 한쪽에 1967년 건립한 서기훈 목사 순교 기념비가 있다. 기념비에는 서기훈 목사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었다가 풀려나 인사차 찾아온 권오창 속장에게 써 주었다는 7언 절구 짧은 한 시가 새겨져 있다.

“死於當死非當死 生而求生非是生”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당연히 죽어야 할 때 죽는 것, 이는 참 죽음이 아니오

살아있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 이는 참 삶이 아니니라.”

차마 양을 버리고 갈 수 없어 적대자들의 세력 한 복판에서 남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인 순교자의 진솔한 고백이자 요령과 안일을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책이다.

다니며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 하면서 극복하자.” 심방하였다. 어떤 때는 “오늘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동짓달 열아흐레를 잊지 말게.” 하여 밖의 일을 알려 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인공치하’에서 심방 목회를 하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전세가 다시 기울어 공산군이 철원에서 철수하면서 마지막 남은 우익 인사들을 북으로 연행했는데, 그 때 서기훈 목사도 한밤중에 인민군에 끌려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 이튿날 토굴에서 나온 교

순교자기념주일 행사자료 1

감리교회 순교지 및 순교자 유적지 방문하기

● 반나절 코스 1



• 양화진/ 선교기념관

1893년 10월 24일에 개설이 허가 되었으며 이곳에는 초대 선교사와 조국 근대화에 헌신한 구미 각국의 저명인사 500여명이 잠들어 있으며, 최초의 매장 선교사는 존 헤론이다. 양화진 외국인 공원 묘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성금으로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들의 선교정신과 숭고한 희생 봉사의 업적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후세에 전승키 위하여 1985년 1월 14일 재단법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제 5차 총회에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한국기독교선교교회관을 건축하고 묘역을 정리하였다. 현재 아펜젤러를 비롯하여 감리교회 선교사와 그의 가족 묘역은 44기이다.

• 정동제일교회 뱌엘에배당/ 역사박물관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이며, 1887년 10월 9일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H. G. 아펜젤러가 지금의 위치에 설립했다. 그는 예배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자리에 있던 한옥집을 구입하여 개조하고

‘베델 예배당’이라고 불렸다. 교회 근처에는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이 있었고 교회는 이 학당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개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사회교육관내에 역사박물관이 있다.

• 배재학당

1885년 8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H.G.아펜젤러가 세웠으며, 오늘날의 배재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885년 7월 서울에 도착한 아펜젤러가, 1개월 먼저 와 있던 W.B.스크랜턴의 집을 구입, 방 두 칸의 벽을 헐어 만든 교실에서 2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가 된 곳이다. 현재 배재학당 터만 남아있다.

• 이화학당

조선시대 말기인 1886년(고종 23)에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Scranton, M.F.)이 서울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서울 중구(中區) 정동(貞洞)에 창설한 사립 여자교육기관이다. 한국여성으로 하여금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보다 완전한 한국여성이 되게 할 목적으로 세웠다. 이듬해에 명성황후가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이름을 내리었고, 초등교육·중등교육·대학교육을 아울러 실시하였다. ‘이화(梨花)’는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회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신학교로 경건·학문·실천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에 있다. 1905년 6월 존스 선교사(조원방; 趙元芳 : C. H. Jones)이 일반신학당을 세운 후 1대 교장이 되었다. 1907년 협성신학당으로 개칭되었다가, 1931년 12월에 감리교신학교로 개칭되었고 후에 감리교신학대학교로 변경되었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구서울구치소(사적 제324호)의 일제강점기의 명칭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시위관련자 1,600여 명을 합해 3,000여 명이 수용된 것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에 허위·유관순·강우규 등 수많은 애국지사가 수감되었던 민족수난의 현장이다. 1945년 이후에도 간첩·사상범, 많은 운동권 학생과 재야인사 등이 거쳐간 곳으로서 한국의 교도행정상 빼놓을 수 없는 기념지이다. 이곳에는 유관순굴·특수고문실 등이 있는 감방과 강우규·송학선이 처형된 사형장 및 일반사무실·교회당·공장·창고·취사장·식당·세면장·감시탑과 운동장 등이 있었다.



● 만나절 코스 2



• 종교교회

남감리교회 선교본부는 윤치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양선교 관리감독인 핸드릭스로 하여금 중국에서 활동중인 리드(C.F.Reid) 선교사에게 조선을 답사하도록 하였다. 리드 선교사는 1895년 10월 13일 제물포항에 도착하였고, 이때부터 남감리교회 선교가 시작되었다. 지금의 한국은행자리에 선교부를 설치하여 선교활동이 본격화 되었고 1897년 캠벨부인이 입국하여 1898년 내자동에 배화학당을 시작하였다. 학교내에 예배처소를 세워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자교와 종교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 감리회 본부

감리회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이다.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각 국에 총무와 원장, 실장 등 7명의 임원이 있으며, 각 부서에는 부장과 직원들이 대내외 업무를 처리한다.

• 태화기독교사회관

1920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여성계몽, 유아 복리의 목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이다. 태화복지재단은 선교사에 의해 당시 현장의 필요에 따라 먼저 복지시설이 세워졌고 이후에 법인이 설립된 경우로, 85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 최초의 복지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 전무했던 시절부터 한국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어왔다. 현 태화사회복지관재단은 전국에 걸쳐 여러 개의사회복지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단법인 사무국만 원래 위치에 있다.

• YMCA

세계적인 기독교 평신도 운동단체로서 1844년 6월 영국 런던의 히치콕로저스 상점의 점원이던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가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산업혁명 직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의 정신적·영적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설립하였다.

회원들은 YMCA 운동의 정신인 독일 경건주의에 따라 정신적 각성, 만인사제론에 입각한 평신도성의 자각, 선교에 대한 정열과 기독교 정신으로의 일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 상동교회

상동교회는 이 나라 민족운동사의 핵심 애국독립운동 역사의 터전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교사 스크랜튼 대부인이 남대문 안에 병원과 약국을 설립할 목적으로 달성궁 터를 매입하여 약국(병원)과 예배실을 마련했다. 1888년 10월 9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창립된 상동교회는 정동제일교회와는 달리 민족교회로 출발했으며 1900년 11월 29일 최초의 한인중심연회가 이곳에서 조직됐다. 이때 한국최초의 감리교 장로사인 스크랜튼 선교사가 초대 연회장으로 추대됐다.

• 양화진 선교기념관/ 외국인 묘역

1893년 10월 24일에 개설이 허가 되었으며 면적은 13,224 제곱미터이다. 무덤은 500여개가 있으며, 최초의 매장 선교사는 존 헤론이다. 이곳에는 초대 선교사와 조국 근대화에 헌신한 구미 각국의 저명 인사 500여명이 묻혀있는 양화진 외국인 공원 묘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성금으로 선교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들의 선교정신과 숭고한 희생 봉사의 업적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후세에 전승키 위하여 1985년 1월 14일 재단법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제 5차 총회에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한국 기독교선교교회관을 건축키로 결의하였다.

● 인천 코스



내리교회



영화초등학교/선교사 집터(창영동)



주안 성서박물관

• 내리교회

내리교회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1891년 제물포 웨슬리 기념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이후 1892년 한국 최초의 초등학교인 영화학교를 설립해 교육과 계몽

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를 펼쳐나갔다. 1897년에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청년회인 애플청년회를 조직해 기독교청년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다.

• 영화초등학교(창녕교회)

영화초등학교는 역사적인 인천 개항 이후 1892년 미국인 존스 선교사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익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창녕교회 뒤 편에는 옛 선교사 집터가 있다.

• 주안 성서박물관(주안교회)

국제성서박물관은 1995년 4월 30일에 개관한 곳으로 주안교회 원로 목사이신 한경수 감독께서 목회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40년간 개인적으로 수집한 성경을 모아 놓은 곳이다. 개인적인 수집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박물관으로서, 고대 근동 지역과 유럽, 북미 지역의 귀중한 성경들, 또한 아시아권 성경들과 아프리카권의 여러 나라 방언으로 된 성경 약 1,8000권이 소장되어있다.

● 천안 지역



천안매봉교회



유관순기념관



제암리 교회



독립기념관

• 천안매봉교회

매봉교회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1리 338-6에 위치해 있다. 용두리의 옛 이름은 '지령리' 였다. 지령리는 산이 서쪽으로 병풍같이 에워싸고 있으므로 산서라고도 부른다. 예부터 산이 마을을 에워싸고 물이 돌아 흘러서 인물이 많이 날 곳이라 하여 지령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병천이란 말도 순우리말로 하면 '아우내', '아오내', '아내' 다. 이렇듯 병천 아우내장터는 병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 유관순 기념관

유관순 열사 탄신100주년을 맞아 2003년 4월 1일 개관한 기념관에는 열사의 출생에서 옥중 순국까지의 열사일대기가 전시물과 함께 영상물로 꾸며져 이곳을 찾는 많은 참배객들에게 당시의 상황과 열사의 정신을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열사가 벽에 서서 고문받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벽관체험코너와 태극기를 직접 찍어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체험공간을 마련 산교육의 장소가 되고 있다.

• 제암리교회

1919년의 3·1운동은 개신교가 한국 민족주의 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개신교는 천도교-불교와 함께 3·1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독립만세 시위 중 상당 부분이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주도됐다. 그 만큼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한 피해도 많았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경기도 화성군의 제암리 교회로 교인과 주민을 교회에 가두고 방화하였다.

•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흑성산에 있는 민족 기념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후세를 위한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삼기 위하여 관련 사료(史料)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하였다.

● 흥천 지역



무궁화 동산



한서교회/ 남궁익 기념관

• 남궁익 기념비

흥천읍에서 조성한 독립운동 기념공원 안에 남궁익 기념비가 있다.

• 한서교회 남궁익 기념관

흥천읍 초입새에 위치한 한서교회는 남궁익 기념관과 복원된 옛 교회당, 넓은 무궁화 묘목장, 그리고 1998년 7월에 신축된 기념교회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있는 한서교회는 남궁 익 장로님의 나라 사랑, 무궁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민족운동의 교육관이라 할 수 있다.

● 서천 · 군산 지역



서천 마랑진
(아펜젤러 순직 추모비, 성경전래지 기념비)



군산 아펜젤러순기념교회, 기념관

• 마랑진 포구

1816년 영국 극동탐사선 알세스트호 함장 맥스웰 대령이 조선참사 조대복에게 하선시 벽면 서가의 많은 책 중 아름다운 성경을 뽑아 선물했다는 항해기록이 있다. 마랑진이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 알려지면서 성지와 관명지로 개발되고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성경번역을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서천 앞바다에서 순직한 아펜젤러를 기념하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 기념관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순교기념교회(전 온누리교회)는 아펜젤러 목사 추모 105주년을 맞아 교회명칭을 변경하고 최근 입당예배를 드렸다.(군산 내조동)

● 기타지역

• 철원 장흥교회 순교기념비, 서기훈 목사 기념비

해방직후 교회 청년들이 철원 애국단을 조직하여 반공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곳.

• 삼척제일교회 순교기념비, 천곡교회순교기념비

1941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최인규 권사의 순교비가 있는 곳.

• 이천중앙교회 구연영 순국 기념비

민족 운동가 구연영, 김제안 등이 설립.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교회 전도사 구연영과 그의 아들 구정서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이천 장터에서 학살당함. 교회에 구연영 기념비가 있음.

감리교회 순교, 수난, 역사자료 프로그램

① 교회사 발간

30년 이상이거나 그 이전이라도 2-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순교자 기념주일 혹은 교회창립기념일에 개체 교회사나 사료집을 발간해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우리 교회 역사 인물 찾기

교회에 혹은 연세 드신 분 중에 순교사를 직접 경험 하신 분이나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간증의 시간을 주어, 우리의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실제로 순교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순교자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③ 개 교회사 정리, 발표하기

프리젠테이션 개교회사를 간략하게라도 준비하여 예배시간이나 특별한 교회역사모임을 갖고,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

④ 역사자료 영인본 작업 하기

교회사를 정리했으면 영인본을 만들어 역사 자료로 남기도록 한다.

⑤ 교회역사 신문 만들기

각 부서별로 교회역사 회보나 신문을 제작해 온 교인이 참여하는 순교자 주일을 보낸다.

⑥ 교회역사 화보집 제작하기/전시회

교회 역사 사진 혹은 활동 내용을 30주년에 한번 정도 화보집을 내거나 교회사진 전시회를 한 후 역사자료로 보관한다.

⑦ 순교자 역할극/작은 노래극 발표하기

순교자에 관련된 책의 내용을 토대로 역할극 혹은 작은 노래극으로 꾸며 발표한다.

⑧ 순교자, 위인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자료집에 추천되어 있는 순교자, 위인에 대한 책을 읽거나 순교자, 위인들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졌던 애국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감상문을 쓰도록 한다.

⑨ 주요역사자료목록 조사하기

당회록(명단포함), 구역회록(명단포함),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 임원회록, 세례자 명단, 입교인 명단, 매년 임원명단, 매년 활동보고, 각 당회 부장 보고서, 목회계획서 등



감리교회 수난자 및 위인전 읽기

1. 남궁억 장로

- 나라를 일깨운 남궁억 장로 1 ' 장하림 ' 평단문화사 ' 1999
- 나라를 일깨운 남궁억 장로 2 ' 장하림 ' 평단문화사 ' 1999

2. 최용신 선생

- 최용신의 생애 ' 류달영 ' 성천문화사 ' 1998
- 상록수와 최용신의 생애 ' 심훈 ' 홍익재 ' 1992

3. 이 준

- 고종황제의 마지막 특사 이준 ' 이계형 ' 역사공간 ' 2007
- 이준열사 ' 최문자 글, 김선정 그림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 2006

4. 유관순

- 애국소녀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 홍석창 ' 에이멘 ' 1989
- 유관순 ' 윤봉춘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5

5. 이용도

- 이용도의 생애, 신학, 영성 ' 한들출판사 ' 2001
- 이용도 목사의 영성과 예수운동 ' 이용도신앙사상연구회 ' 성서연구사 ' 1998
- 이용도의 신비주의의 한국교회 ' 류금주 ' 대한기독교서회 ' 2005

6. 기 타

- 신석구 연구 ' 이덕주 '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 2000
- 순교순국자 최인규 권사의 삶과 신앙 ' 윤춘병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 2000
- 한국감리교 수난 백년사 ' 윤춘병 '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 2003
- 6·25와 한국감리교회 순교자 ' 아현중앙교회 50주년기념사업회 ' 감신대 출판부 ' 2006

강종근 목사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에서 태어남. 1910년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으며 1925년에 배재학교를 졸업하였다. 1928년 협성신학교(현 감신대)를 졸업하면서 철원 연천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30년 9월 기독교조선감리회 동부연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1935년 양주 창동교회, 1937년 9월 철원제일교회로 파송받아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는 교인은 물론 일반 불신자들에게도 존

경과 신임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 경찰은 교회 행사에 일일이 간섭하고 방해하며 강종근 목사를 호출하여 방해하곤 하였다. 1940년 6월 철원제일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예비검속령”에 의해 구속되어 1년형을 선고받은 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받은 고문으로 신병이 약해지자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아내 윤희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주를 따라간다. 마음이 기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때가 1942년 6월 3일이었다. 윤희성 여사는 아현동에 신성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장로로서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

신석구 목사는 민족과 신앙, 목회와 사회 참여를 조화시킨 인물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은 길과 희생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목회자였다.

신석구는 1875년 5월 3일 충청북도 청주군 미원면 금관리 구개동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아버지를 잃은 후부터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 고량포에서 친구 김진우의 권유를 받아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갔으니 1907년 7월 14일 주일, 그의 나이 33세 때의 일이다.

믿은 지 한 달 반 후에 같은 고향 출신인 정춘수를 만나 개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선교사 리드(C.F.

신석구 목사

민족운동가
호은재(殷載)

Reid, 李德)의 어학선생으로 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1909년 7월 29일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죄를 떨쳐버리는 중생을 체험하였다. 1909년 2월부터 전도인이 되어 여러 지방에서 목회하였고, 1917년 9월 24일 남 감리회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민족의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는 당시 서울 수표교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화영 목사에게 민족 대표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이 일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교회를 맡아보면서 교회 재건에 힘쓰는 한편 평양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46년부터는 공산 정권과 대립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3.1절 기념방송을 하면서 공산당이 작성한 원고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여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고생을 당하였다. 또 공산당이 주는 3.1절 공로 표창을 거부하였고,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에 대해 냉소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공산당의 탄압을 받았다.

그 후 반공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고 공산당이 조작한 “진남포 4.19사건”으로 1949년 4월 19일 우익인사 47명과 함께 체포되어 10년형을 받고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 중 1950년 10월 10일 후퇴하던 공산군에 의해 총살 당하여 참 신앙인의 길을 마감하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그의 반일 독립 투쟁 업적과 공헌을 기려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복장)을 추서하였고, 1968년 9월 14일에는 그의 영현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1978년 3월 1일 감리교신학대학에 건립된 “감신 출신 민족 대표상”에 다른 다섯 분과 함께 그의 흉상이 새겨졌고, 1980년 8월에는 청주시 3.1공원에 충북도민의 성금으로 동상이 건립되었다.

서기훈 목사

순교자
호_우죽(愚竹)

충남 논산군에서 출생.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1909년 세례를 받았으며 1914년 6월 남감리회 전도사 직첩을 받고 전도생활을 시작하여 1918년 감리교 협성신학교(현 감신대)를 졸업하였다. 1922년 원산지방 고저교회, 1923년 간성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23년 집사목사, 1925년 장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고저 교회를 담임하였다. 1929년 김화교회로 전임되었고, 1931년부터 1933년까지 3년 동안 철원지방 감리사를 역임하였다. 1940년에는 일제의 박해로 7개월간 고성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했다.

해방 후 1947년 6월부터 철원지방 장흥리 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11월경 공산군 패잔병들이 침입하여 청년 교우 집에 들어와 밥을 얻어먹은 뒤 동네 청년들과 싸움이 벌어져 공산군 9명이 죽었다. 이 일로 그는 검거되어 공산군을 사살한 청년의 이름을 대라고 문초를 당한 후 일단 풀려났으나, 12월 31일 정치보위부에 재 검거 되었으며 같은 달 8일 암소고개에서 70세의 나이로 총살당했다.

1950년 12월 28일 일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서기훈 목사를 문안차 찾아온 장흥리교회 속장 권오창(權五昌)에게 “死於當死 非當死 生而求生 不是生”(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오,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이라는 유시를 남겼다. 1967년 3월 13일 박창국 감리사의 발의와 장흥교회 교인들의 협조로 그 교회당 앞에 그의 신앙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비문으로 위의 시구와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기록되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 : 24)

이용도 목사

부흥운동가
호_시무언(是無言)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시변리에서 비(非)신자인 아버지와 경건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의 편치 않은 가정 속에서, 어머니의 신앙에 깊은 감화를 받아 13세 때부터 예배당 종각에 올라가 여러 시간 혹은 밤새도록 기도를 올린 일도 있었다. 시변리공립보통학교를 졸업(1914)한 이용도는 1915년에 개성 한영서원에 입학하였다. 이용도는 19세에 결혼까지 한 몸이었으나, 3.1운동 때 개성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약 2개월간 구

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20년 2월 11일에는 기원절 사건으로 6개월간, 1921년 성탄절에 붙은문서 사건으로 6개월간, 1922년 가을에 태평양 의회 사건으로 2년 징역 언도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는 등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았다.

이용도는 1924년 윤치호와 왓슨 교장의 추천으로 협성신학교(현 감신대)에 입학하였다. 이용도의 폭풍우 치는 마음은 우원 이호빈, 이환신과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갔으나, 1925년 가을 사형선고와 같은 폐병 3기 진단은 이용도가 이환신의 손에 이끌려 강동(江東)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강동에서 이용도는 작은 교회의 부흥회 인도를 맡았는데 이때의 체험은 이용도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강단에서 한없이 쏟은 눈물이 이용도를 탄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그의 병은 호전되었고 음식도 상당히 섭취하면서 자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1928년 1월 28일 이용도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통천구역으로 파송받았다. 그의 교회 담임 초기의 활동은 이성적인 전도인이요 문화적인 교역자였다. 통천읍 서북쪽 백정봉에서 10일간의 금식기도 후 이용도는 변화되었고, 특히 1928년 12월 24일 새벽에 환상 속에서 마귀와의 투쟁(승마 체험)은 그가 대부흥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용도는 1929년에 자기가 담임한 교회 이외에 20여 교회에서의 부흥회 인도를 시작으로 1930년도에 여러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1930년 주일학교연합회 간사로 부임한 후에도 부흥회 인도를 멈추지 않았다. 5년 목회기간 동안 약 1백여 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

하였다.

그는 찬송과 기도와 설교의 사람이었다. 성령이 임하면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용도는 기도, 체험, 성령 충만을 강조함으로써, 특히 영혼만을 구원한다는 데 집중하였다.

1933년 1월 28일에서 2월 4일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곳에서 또 과격한 몇 청년들에게 폭행당한 것이 그가 공식 석상에 섰던 마지막 기회였다. 결국 그는 불치의 병, 폐결핵으로 1933년 파란 만장했던 생(生)을 조용히 마감했다.

전덕기 목사

전덕기牧사는 한국 교회사와 한국 역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민중과 함께 민족의 문제에 과감하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생활로 본을 보였다.

전덕기 목사는 1875년 12월 8일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다. 9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가난하게 자랐다. 1892년 스스로 미감리회 선교사인 스크랜턴을 찾아가 그의 집에서 일하였다.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1896년에는 세례를 받아 스크랜턴의 동역자가 되었다.

1897년 상동교회 속장이 되어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1899년에는 교회 안에 설립된 공옥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며 불우한 형편의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1901년에는 권사직을 받았고, 1902년에는 전도사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목회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당시의 교역자 양성 과정인 “신학회”에 참석하여 신학훈련을 받은 후 1911년에 다시 “협성신학교(현 감신대)”에 입학하여 그 해 가을에 졸업하였다. 1905년에는 집사목사로 안수받고 스크랜턴의 뒤를 이어 민중 지역인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

또한 전덕기 목사는 청년운동에 힘썼다. 상동 엠피청년회(Epworth League)는 1897년 9월 5일에 조직된 청년회로 “말랄류 지파”(Mallalieu Chapter)로 불리며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단체였다. 전덕기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청년회장으로 활약하였다.

전덕기 목사는 청년학원을 설립하는 등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꾼을 키워냈다. 그는 상동교회 안에다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학문을 통한 빈곤 추방과 국세 회복을 취지로 “상동청년학원”이란 이름으로 1904년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1905년에는 그 활동을 해외에까지 확대하였다. 한국에서 멕시코 유카탄에 이주한 교포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전덕기는 각 교회 청년회를 소집하여 논의하고, 이를 신문에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그 참상을 알리고,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그 대책을 촉구하였다.

전덕기 목사는 민족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독립협회의 활동에 간부로 활동하였고, 1905

년 11월 1주일 동안 을사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구국 기도회를 주도하였다. 또 1907년 헤이그만국평화회에 이준 이상설 등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하는 일에도 고종에게 친서를 받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07년 4월 창립된 신민회도 상동교회 출신들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1912년 이후에는 지병이 악화되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2년 동안 고생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39세의 나이로 1914년 3월 23일 별세했다. 그의 주검은 경기도 고양 땅에 묻혔다가 1934년 일제의 강요로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졌다. 이로 인해 그의 위패만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다.

구연영은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이다. 그는 민족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서 몸으로 부딪치며 예수의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 민족을 위한 이러한 활동은 이후 감리교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오늘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공포되자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력 항쟁이 일어났다. 이 때 구연영도 이천에서 의병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의병을 소집하여 이천 의병대의 중군장(中軍將)으로 활약하였다.

그 후 구연영은 1897년 2월 서울 상동교회의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가 구국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상동교회에서 전덕기와 함께 엠피청년회를 조직하고 교회 조직을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다.

1899년 3월 덕들교회에서 세례받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매서인이 되어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1902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지난 1년 동안 1천 5백 마일을 여행하며 성경만 6백 권 팔았고, 이러한 그의 전도활동으로 이천, 광주지역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1902년에는 권사 직분을 받고 매년 2회 개최되는 신학회에 참석하여 신학교육을 받았다. 신학회를 통해 목회자 자격을 갖춘 그는 1905년부터는 정식 전도사로 임명되어 이천읍교회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교회를 순회하며 돌보았다.

구연영은 복음 사역뿐 아니라 민중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에도 힘썼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국회’를 조직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을사조약 철폐를 주장하였다. 동시에 친일 단체인 일진회의 정체를 폭로하는 강연을 하였으며, 일제의 경제 침략에 대항하는 국채보상운동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집회가 이천 장터에서 2천여명이 모인 예수교인 대회였다. 예수교인 대회를 마치고 며칠 후 일본군은 구연영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그는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1907년 8월 24일(음력 7월 16일) 오후 1시경 이천 장터에서 미루나무에 묶인 채 눈을 감고 기도하던 중 총탄에 맞아 순교하였다. 이렇게 “천성이 관후인자하고 활발용감하며

구연영 전도사

정의감이 강하여, 옳은 일이면 백절불굴하고 실행”한 구연영은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추서하였으며, 1978년 8월 6일에는 이천중앙교회 뜰에 그의 추모비를 세웠다.

남궁억 장로

독립운동가
호_한서(翰西)

서울 왜송골(현 정동)에서 남궁영(南宮泳) 씨의 외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덕수(德水)이씨인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고생스럽게 자라났다. 그는 어깨너머로 공부를 시작하여 사서삼경을 통달하였고, 21세가 되던 1883년에 문중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관립 영어학원에 입학하였다.

그가 벼슬살이를 시작한 것은 1886년이었다. 내부주사(內部主事)로 피임되어 어전 통역을 맡았고, 1887년에는 조민회가 이끄는 외국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통역과 서기관으로 일하였다. 1889년에는 궁내부 별군직(別軍職)에 임명되어 4년 동안 일하였고, 1893년에 경상도 칠곡의 부사(府使)로 취임하여 갑오년의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을 임지에서 겪었다. 1895년 칠곡부사를 사임하고 내부 토목국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독립협회 시절 윤치호의 전도로 남감리교 종교교회에 입교하였으며,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가 창설된 이래 열성회원이었고, 그 후로 기독교청년회 이사,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1913년에는 한국 YMCA 대표로 한·일 YMCA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1905년 성주목사로 임명받은 그는 을사보호조약을 맞아 큰 충격을 받고 나라를 구할 길은 인재를 기르는 데 있다고 생각해 교육에 뜻을 두었다. 1906년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원을 설립하였고, 1907년 반일단체 대한협회장에 취임했으며, 1908년에는 순 한글로 된 <교육월보>를 창간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배화학당 교사로 들어가 기독교 여성교육에 몸담았고 여성교육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교육과 진보적 여성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다가도 틈만 나면 한국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18년 그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으로 낙향한 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예배당을 세우고 모곡학교를 시작하면서 청소년 교육과 전도에 전력을 다했다.

1922년, 민중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만든 유명한 찬송가 371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은 일제가 애국성이 농후하다 하여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 시켰다. 1923년에는 춘천 주재 남감리교 선교사 스톱스 목사의 도움을 받아 모곡학교 교실과 기숙사를 건축, 원근 젊은이들을 모아 애국교육을 시켰다.

그의 낙향 이후 예정에도 없던 주재소를 모곡에 설치하고 모든 활동을 감시하던 일제는, 학생들이 부르는 “무궁화동산” 노래를 듣고 그 출처를 조사하다, 보통학교 과목에도 없는 국사교육을 한 사실과 춘

천 십자가당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음을 알아내어, 1933년 11월 4일 구속되었다.

그는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르다 1934년 7월 1일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보석된 후, 오로지 교회사업만을 위해 힘쓰다가 1939년 4월 5일, 7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애국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선생의 유해는, 새벽마다 올라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모곡학교 뒤편 유리봉에 묻혔다. 1977년 독립유공자 추가 보상자로 선정되었다.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에서 최돈일(崔墩一)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이후 한학을 수업하였고, 18세에 부모의 주선으로 한 살 위인 홍은선(洪殷先)과 결혼했지만, 부인이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뜨자 술로 세월을 보냈고 1921년 주위 사람의 인도로 잠시 북평교회(현 북평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으나 이내 세상으로 돌아갔다. 또 다시 술로 세월을 보내던 그는 45세 되던 1924년 여름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북평교회 담임인 김기정 목사에게서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 1925년 2월 15일 학습을 받았고 그 해 12월 7일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었다. 그는 주일을 엄격히 성수하였고 예수 믿은 지 8년 만인 1932년 9월 16일 삼척구역회 천거로 권사직까지 받게 되었다.

그 후 마땅한 기도처가 없었던 찰나에 병고침을 받은 이창석의 아내가 교회 부지를 헌납한 것을 계기로 천곡교회를 지었다. 이후 믿음의 식구는 늘어갔지만 말씀을 전할 설교자가 없어 안타까워하던 그녀는 최인규에게 이 일을 부탁했고, 그는 이를 쾌히 승낙했다. 이후 최인규 권사는 자신의 논 5백 39평과 밭 1천 3백 69평을 교회대지로 헌납하였고, 열심으로 일하여 193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초가 8칸 예배당을 세웠으며 이듬해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최인규의 헌신적인 신앙과 생활은 전 감리교회의 모범이 되어, 1938년 10월 총회 때 상장과 은제 상패를 표창받기도 하였다.

1938년 이후 더욱 가중되는 일제의 탄압 속에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근심하던 그는 결국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1940년 5월 체포되었다. 이에 일경은 망신을 주기 위해 그의 어깨에 똥통을 지우고 동네 집집마다 끌고 다니며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하고 외치게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끌려 다녔다.

이후 강릉구치소로 옮겨져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함흥재판소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 모습을 본 재판장은 격노하여 책상을 치며 불경죄로 징역 2년형을 언도했다. 그때가 1941년 11월 21일이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늘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였다. 그 이후 1941년 12월 대전형무소로 함께 이감되었다.

최인규 권사

순교자
호_천곡(泉谷)

그는 계속되는 고문과 잦은 단식으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 음식조차 먹을 수 없게 되자, 병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인 1942년 12월 16일 14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후 그의 유해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삼척교회로, 거기서 다시 1986년 11월 11일 천국교회 교정으로 옮겨 안착하였다.

유관순 열사

충남 천안군 목천(木川)면 용두리 지령부락에서 유중권(柳重權)과 이소제(李小悌)의 4남매 중 둘째 딸로 출생. 그의 집안은 선비 가문이었는데 아버지 유중권은 이 지방에서 가장 먼저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이로, 이 지방에 신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과 함께 흥호(興湖)학교를 세워 신교육에 투신하였으나 일인 고리대금업자의 행패와 학교부채로 실패한 후 구국의 방법과 신념이 기독교에 있음을 자각하고 조인원(趙仁元), 유빈기(柳斌基)와 더불어 교회당을 중심으로 민중계몽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정배경에서 자란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모범을 나타냈다.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교회에 봉사하며 가사를 돌보고 있던 유관순은 당시 공주 및 천안지방 순회 선교사였던 여선교사 샤프(A.H. Sharp, 史愛理施)의 소개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하였으며 보통과 2년을 수료한 뒤 1918년 고등과 1학년에 들어갔다.

유관순은 고등과 2학년 초기에 3.1운동을 맞이하였다. 당시 이화학당 내에는 학생 단체 “이문회”(以文會)가 있었는데 회원들은 학생 동원을 책임진 박희도의 요청에 따라 3월 1일을 기해 대한문 앞에 나가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파고다공원으로 달려가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3월 5일 서울 지역학생연합시위에 참여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당했으나 곧 석방되었다. 3월 10일, 총독부의 휴교령에 따라 학교가 휴교상태로 들어가자 그는 고향인 목천으로 내려와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유관순은 고향 교회인 매봉교회 교인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준비했다. 유관순은 사촌언니 유예도와 함께 고향인 지령리 일대와 연기,청주,진천까지 왕래하며 동지를 모았다. 만세시위 일자는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오내 장날로 정했으며 그날 천안·안성·진천·청주·연기·목천 여섯 고을에서 모여든 3천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조인원의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유관순의 독립연설이 있는 뒤 시위에 들어갔다. 유관순도 그날 체포되어 천안헌병대에 송치되었다.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시위를 죄수들과 함께 벌였다. 이 사건으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고 결국 병을 얻어 1920년 10월 12일 옥사하였다.

몇 토막으로 유린당한 유관순의 시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유관순의 자세한 사적이 이화학당 교사였던 박인덕(朴仁德)에 의해 알려졌으며, 1947년 8월 신봉조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 의해 유관순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그의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공로단장을 추서하였고, 1966년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지령리에 유관순기념교회를 세우고, 1974년 유관순기념관을 설립하였다.

1887년 29세 때 함경도시에 장원한 후 함경감사 조병식(趙秉式)과 협의하여 스스로 2천 평의 토지를 회사, 경학원(經學院)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1896년 2월 한성재판소 검사보에 임명되었으나 고관의 비행을 탄핵한 죄로 1개월 만에 면관(免官)되고 말았다.

이후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평의장(評議長)으로 활약하다가, 을미사변 이후 조직된 김홍집 등 친일내각 각료들과 교제가 있던 그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97년 와세다대학 법과에 들어가 이듬해 졸업하였고 마침 그의 체포령이 해제되었다. 이에 귀국하여 다시 독립협회에서 일하는 한편 상동교회 청년회장직을 맡아 힘쓰다가, 독립협회 해산 시 간부 17명과 함께 체포되어 수개월 후 석방되었다.

친일파인 일진회와 대항하기 위해 공진회(共進會)를 조직, 회장에 추대되어 친일대신 5명을 성토하다가 체포, 황주 철도(黃州 鐵島)에 6개월 간 유배당했다. 이때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실한 신앙에 몰입하게 되었다.

1905년 1월 민영환,이용익(李容翊)의 주선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국민교육회장에 취임하여 보광학교(普光學校)를 세웠고, 서북흥학회를 창설한 후 오성학교(五星學校)를 세워 교육에 힘쓰는 한편, 법안연구회와 헌정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그 해 평리원(評理院) 검사를 거쳐 특별법원검사가 되어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재판하다가 미움을 받아 법무대신의 완력으로 곧 파면되었다.

또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상동교회에서는 전국감리교회 엽윳청년회 연합회가 소집되어 “을사보호조약” 무효상소운동을 결의하였는데, 이때 상동교회 엽윳회 대표로 참석한 그도 대한문에 나가 상소를 올렸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무참히 해산되고 말았다.

한편 1907년 7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어서 전덕기 목사는 이준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상동교회에서 그를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었다.

그 해 4월 헤이그로 출발한 그는 도중에 이상설·이위종과 합류하여 6월 25일 도착,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으나 일본과 영국 대표의 방해 및 각 국 대표들의 냉담한 태도로 말미암아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이 당시 서울에서 The Korea Review를 발행하며 배일운동을 하던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가 헤이그로 와서 한국 대표를 후원하며 회의 참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비분한 이준은 49세를 일기로 자결 순국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

이 준 열사

독립운동가
본명 순칠(舜七)
초명 성재(性在)
호 일성(一醒)

서되었으며, 그 동안 헤이그에 묻혀 있던 유해가 1963년 서울 수유리 묘지로 이장되었다.

최용신 선생

최용신은 절망적인 한국 상황을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민족에 대한 헌신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였다.

최용신은 함경남도 덕원의 두남학교를 다니다가 남감리회에서 운영하던 루씨여자학교로 1918년 전학하여 보통과와 고등과를 졸업하고, 1928년 협성여자신학교(현 감신대와 통합)에 입학했다. 그가 신학교를 찾은 것은 당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그 중에서도 농촌 여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농촌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산계획 등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한국 농민의 대부분은 절대 빈곤의 상태에 빠졌다. 최용신이 농촌운동의 꿈을 키우고 있던 때 마침 농촌 문제 전문가인 황애덕(황에스더)이 협성여자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해 왔다. 그는 신학교에 부임하자마자 “농촌사업지도교육과”를 신설하고 농촌운동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때 그에게서 교육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최용신이다.

황애덕에게서 농촌운동에 관한 이론을 배운 최용신은 1929년 여름방학 때 김노득과 함께 황해도 수안군에 있는 두메산골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계몽활동을 벌였다. 한편 건강이 좋지 않던 최용신은 김노득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학업을 계속한 후 1930년 여름방학 때 경북 포항에서 다시 경험을 쌓은 후 학업을 포기하고 1931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샘골)에 정착하게 되었다.

YWCA는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협동 조직, 보건 위생 및 농업 개량을 위한 과학 지식의 보급을 꾀하는 한편 부업지도와 의식주 생활의 개선, 문맹퇴치와 악습폐지 등의 주요 과제를 실천하려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샘골이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그 활동을 위해 최용신이 교사로 파견된 것이었다. YWCA의 재정적 후원을 받은 최용신은 1929년 YWCA 제7회 총회에 협성YWCA 대표로 참석했었다.

최용신은 샘골에서 예배당을 빌려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사업을 실시했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재봉·수예 등 여성 부업 장려운동을 벌였다. 1932년 5월 정식으로 강습소 인가를 얻었고, 8월에 천곡학원 건축발기회를 조직하고 그곳 유지와 YWCA 보조로 학원 건축을 시작하였다. 1933년 1월 15일에는 낙성식을 거행하여 1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본격적인 학원을 이루었다.

최용신은 새로운 농촌운동의 전개를 위해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석달 만에 각기병에 걸려 학업을 중단했다. 병든 몸으로 귀국하여 샘골에 정착하고 요

양한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이 겹쳐 1935년 1월 23일 별세하고 말았다. 최용신은 1974년 11월 29일에는 천곡교회에 그의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64년 “용신봉사상”을 제정하여, 그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여성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터툴리안 비석 ' 용인한국기독교기념관내

제1회 순교자기념주일 자료집

발행인 | 신경하

편집인 | 감리회본부 비서실 역사전산부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¹⁰⁰⁻¹⁰¹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www.kmc.or.kr

디자인 | 아토 21 전화 02 · 2051 · 0981

